

'마음 충전 프로젝트, 휴심' 사업 완료 제주DPI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마음 충전 프로젝트, 휴심' 사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통 나눔 기쁨, 인권멘토링 '다독다독' 프로젝트를 통해 멘토가 직접 중증장애인 16명을 찾아가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고, 세상밖으로 인권소통상담 '우리,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4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나와 나, 같이 인권 마주보기 캠페인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8명이 직접 인권 문구의 캘리그래피를 디자인해 컵홀더 1000개를 제작,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하모니카페 및 예월의 언니커피 등에 배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마음 충전 프로젝트, 휴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내용과 대상자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사회참여 경험 공유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고취를 비롯 ▷활동지원사의 업무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통한 업무 자긍심 고취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유대 강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질 향상 ▷일상에서의 인권캠페인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문화·부문화씨 생활체육 유공 표창



제주도체육회는 고문화 제주도역도연맹회장과 부문화 제주도족구협회장이 '2020년 생활체육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문화 회장은 2017년부터 도역도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엘리트 역도인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역도 동호인들을 양성, 전도역도선수권대회에 참여율을 높였다.

부문화 회장은 2019년 도족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부서별 조직개편으로 분쟁완화에 기여하고, 족구 동호인 100% 회원등록제를 통해 동호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됐다.

동정

이도2동·도남동 일대 제설 작업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장 최근 폭설기간 동안 이도2동자율방재단 단원과 함께 도남동·이도2동 일대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을 실시.

'제주인의 해민정신' 송성대 교수 별세



송성대(사진) 제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78.

송 교수는 경희대 지리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지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대학원장,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장, 제주대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지냈다. 주요 논저로 '제주문화의 재조명-삼무정신 형성에 대한 지리학적 조명',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제주인의 해민정신(海民精神)-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등이 있다.

특히 송 교수는 1996년 초판을 낸 '제주인의 해민정신'을 통해 21세기를 여는 제주도의 지역정신으로 '해민정신'을 정립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해민정신이 중앙이나 한반도가 아닌 제주섬 사람의 입장에서 제주의 문화를 봄으로써 지역문화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도출됐다고 밝혔다.

유족으로 전북대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는 아들 송원섭씨 등이 있다. 발인은 12일 오전 7시 중앙병원 장례식장.

제주시육상연맹 회장에 변영진 대표



변영진(50·사진) 녹둔다원 대표가 통합 제2대 제주시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제주시육상연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세민)는 지난 7일 실시한 제주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변영진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2월말까지다.

변영진 당선자는 "엘리트 선수 육성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3년 전부터 회장 출마를 고민했다"며 "종전 생활체육 위주의 연맹운영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더 큰 육상연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민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시 신인상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인 김정민(사진)씨가 격월간 '문학광장' 2021년 1·2월호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차 한 잔 마시며', '관음사까지', '궁합' 3편이다. 김씨는 당선소감을 통해 "지금부터 시작이다. 참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제주대 식품공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돌과바람문화회(회장 양영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웃에 성금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고영철)는 최근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고영철 이사장은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례초 5-6학년 방송 출연금 기부

신례초등학교(교장 김희정)는 지난 7일 5-6학년 학생들이 방송 출연 사례금으로 받은 40여 만원을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례초 5-6학년 학생들은 제주MBC '시청자TV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례금을 받게 됐으며, 이후 사례금 사용처를 논의한 끝에 기부를하기로 결정했다.



한라초 3학년 문정혁 학생 저금통 기부



한라초등학교 3학년 문정혁 학생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저금통 속 동전과 지폐는 총 13만1200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기탁한 것이다.

(사)백록행복나눔 희망나눔 특별성금



(사)백록행복나눔(회장 김철)은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철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홍동청소년지도협 이웃돕기 성금 기탁



동홍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철훈)는 지난 7일 동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CMS후원계좌로 전달돼 동홍동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일 예정이다.

(주)제직증명 '2020 올해의 벤처상'



조선신 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제직증명(대표 고도호·사진)은 '2020 올해의 벤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 올해의 벤처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익식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한 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직증명은 비대면 식품플랫폼을 지난해 6월에 론칭해 2개월 만에 N포털 10만여개 축산물 상품에서 인기도 1위를 달성했다.

(주)제직증명은 제주지역 토종기업으로, 제주축산분야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2020년 제주스타기업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성적으로 동종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Gallery ED

그리고 Present

2020. 12. 16 WED ~ 1. 29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일)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한리일보